

“관람객 편의 최우선” 여수섬박람회 통합 컨트롤타워 가동

21개 부서·19개 유관기관 총망라
모바일 핫라인 구축 윈스톱 처리
‘先조치後통보’ 현장 대응력 높여
서영학 시장 “안전 행정역량 집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관람객 편의 극대화를 위해 전방위 민원 대응을 강화한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박람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과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민원상황실을 가동하고 행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종합민원상황실은 국민신문고, 여수시 콜센터, 박람회 조직위원회 현장 접수 등 분산된 민원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한 통합 컨트롤타워다.

상황실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상시 운영된다. 심야 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재택 당직 체제를 유지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현장 출동하는 대응 체계를 갖췄다.



서영학 여수시장이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을 찾아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핵심 시스템은 여수시 산하 21개 부서와 경찰, 소방, 해경 등 19개 유관기관이 소통하는 모바일 민원 처리 핫라인이다.

섬박람회와 관련된 모든 민원은 단계 채팅방

에 실시간 공유되며 담당 부서는 확인 즉시 세부 조치 계획을 알리고 처리 결과를 답글로 등록한다. 단일 채널에서 접수부터 완료까지 윈스톱으로 처리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접수된 민원은 ▲행사장 내부(전시·공연 운영, 편의시설 불편 등) ▲행사장 외부(숙박·음식점 바가지요금, 교통 불편 등) ▲유관기관 협조(화재·구조 등 안전사고) 등 3개 유형으로

관리된다.

특히 화재나 해상 추락, 압사 등 긴급 재난 상황의 경우 ‘선 조치, 후 통보’ 원칙을 적용해 골든 타임 확보와 현장 대응력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시는 민선 9기 핵심 시정 철학인 48시간 내 현장 점검을 섬박람회 민원 처리에 도입했다.

주무 부서와 관할 읍·면·동이 현장 출동과 후속 조치에 집중하는 동안 시민소통담당관은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문자와 유선으로 안내해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매일 폐장 후 당일 누적 접수 건수, 유형·구역별 발생 분포, 처리 완료율 등 4대 핵심 지표 데이터를 분석해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사안은 선제 정비하는 등 데이터 기반 예방 행정도 병행한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박람회 기간 중 관람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여수를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명품 도시로 각인시켜겠다”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섬박람회를 치러내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전선 기자

순천시, 지·산·학·연 방산 생태계 구축 맞손

14개 벤더기업 ‘CONNECT 2026’

방위산업 공급망 참여 가능성 모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가 지역 제조기업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과 기술, 인재를 잇는 순천형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1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지역 방산·우주 관련 벤더기업 14개사를 비롯해 지자체, 대학, 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순천 방산 CONNECT 2026’을 개최했다.

‘기업·기술·인재를 잇고, 순천 방산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지역 기업들의 기술·생산 역량을 공유하고 협력해 방위산업 공급망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역 제조기업들이 보유한 특수합금, 소재, 정밀가공, 부품 분야 기술력을 국방 분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업별 역량과 방산 진입 가능성을 분석한 순천 방산 생태계 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체계기업과 지역 벤더기업 간 기술·구매 연계, 공동사업 발굴, 실증 지원 등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술지원센터에서 순천지역 지·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순천 방산 CONNECT 2026’을 진행했다.

〈순천시 제공〉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해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CONNECT 2026 플랫폼을 향후 여수·광양·고흥 등 남해안권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사를 계기로 시는 산업현장 중심의 상설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협력 체계를 이어가며 지·산·연 공동 연구개발 등 방산 기술력 강화 지원

에 나설 계획이다.

순훈호 순천시장은 “전남 동부권이 지난 지리적 이점과 산업 기반을 활용해 거점형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지역 기업이 방산 공급망의 취약·병목 분야를 대체하는 기반 마련을 시작으로 앵커 체계기업 유치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성학 기자

화순군, 보금자리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15가구 모집

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 혜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1일 “주거 안정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15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

택 구입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남광주특별자치시와 화순군이 함께 마련한 시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월 최대 25만원씩 최장 36개월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 사이 화순군에 위치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대출 심사를 통과한 가구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결혼 예정자도 포함

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1명 이상이 12세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1-379-3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이자 지원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젊은 세대가 안심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주거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장흥군, 공모사업 국·시비 확보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은 1일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노영환 부군수 주재로 2026년 공모사업 및 국·시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올해 군이 추진 중인 주요 대상 사업은 총 62개 2천6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말 기준 33개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 83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재원 확보를 위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특히 군은 단순한 실적 위주의 공모 참여를 지양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



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사업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영환 장흥부군수는 “국·시비와 공모사업 확보는 장흥의 도약과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선정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고 하반기에도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남은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담양군, 4일 ‘21세기 담양포럼’ 개최

‘지역조직 협력의 길’ 주제

담양군은 오는 4일 오후 3시30분 담양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1세기 담양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담양의 지역조직, 함께 만드는 새로운 협력의 길’을 주제로 담양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조직 간 협력 방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군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늘려가겠다는 박종원 군수의 의지에 따라 기존 강연 중심의 진행 방식에서 벗어나 기초강연과 함께 의제 발표와 질의응답을 도입했다.

1부에서는 안상욱 주민참여도시만들기연구원 본부장이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연계·통합

전략’을 주제로 기초강연한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현 수원도시재단) 초대 이사장을 지낸 안 본부장은 수원시를 비롯한 다른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 간 협력 방안과 담양 여건에 맞는 적용 방향을 소개한다.

2부에서는 담양군풀뿌리공동체지원센터장과 창평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의 의제 발표에 이어 행정·주민자치·상인·공동체·일자리·도시재생·슬로시티 분야 관계자들이 지역 조직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박종원 담양군수는 “지역의 변화와 협력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담양의 미래를 함께 만들 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광양시, 국보 ‘쌍사자 석등’ 발굴조사 착수

본래 자리 찾기 학술적 근거 확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가 국보로 지정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본래 자리 찾기를 위한 학술적 근거 확보에 나선다.

1일 광양시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옥룡면 중흥사 일원에서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를 위한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15만 광양시민의 염원인 쌍사자 석등의 제자리 찾기를 뒷받침할 결정적인 학술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보물인 중흥산성 삼층석탑과 석등의 조성 시기를 짐작케 하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기와와 전돌, 석역유구 등이 확인된 바 있다. 〈사진〉



시는 본조사에서 삼층석탑 주변을 집중 발굴해 관련 유구와 유물을 정밀 조사하고 역사적 가치를 입증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 기간 동안 현장을 일반 시민에게 전면 공개해 시민들이 발굴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추진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성학 기자

보성군 ‘미식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4일까지 외식업 종사자 등 60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2026 보성미식 아카데미’ 참여자를 오는 4일까지 모집한다.

아카데미는 외식 소비 트렌드에 선제 대응하고 보성의 우수 특산물을 활용한 특화 메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보성군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영업주·종사자다. 교육을 위해 보성과 별교 2개 권역에서 각각 30명씩 총 60명을 선별해 권역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오는 11월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 11

일까지 이어진다. 주요 과정은 ▲경영 마인드 함양 ▲식품 안전업소 제도 이해 ▲온라인 홍보·마케팅 실무 ▲지역 특산물 활용 메뉴 개발·조리 실습 ▲음식문화 우수 업소 현장 견학 등이다.

참여 희망자는 보성군 문화관광과(061-850-5220) 또는 보성군 외식업지부(061-852-3849)를 통해 안내받아 신청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미식 아카데미가 관내 외식업 종사자들의 위생관리와 마케팅, 메뉴 개발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색 있는 보성 만의 음식 콘텐츠를 발굴해 지역 음식문화의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연 기자